

성인여성의 체형에 따른 기성복 적합성에 관한 연구

이 진 희 (원광대학교 의생활과)

현대사회에서의 빠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의복구입의 형태를 기성복에 의존하여 구매하게 하는 경향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과 다양한 직업에의 활동은 자신의 이미지 연출을 위해 의복에 대한 구매 및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성인 여성의 체형을 마른체형, 표준체형, 비만체형으로 구분하고, 표준체형의 경우 젊은층과 중년층으로 나누어 기성복 적합성을 조사하고 만족정도를 파악하여 기성복 업체에 체형에 따른 기성복 적합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연구의 대상은 20대에서 60대까지로 하였으며, 조사지역은 서울, 전주 및 익산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420부를 사용하였으나 회수되지 못한 것과 자료가 미비한 것을 제외한 356부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주로 입는 의복품목에서 블라우스의 경우 표준체형의 중년층에서 50.8%가 주로 입는 의복품목으로 나타났으며, 비만체형이 마른체형보다 더 즐겨 착용하는 의복품목으로 나타났다. 티셔츠의 경우는 표준 체형의 젊은층에서 45.2%가 가장 즐겨 입는 의복품목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티셔츠의 의복 형태가 젊은이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고, 활발한 의복표현으로 적절한 형태적 특징을 갖고 있어서 나타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스커트의 경우 비만체형의 경우 5.8%로 나타나 가장 즐겨 입지 않는 의복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지의 경우에는 표준 체형의 젊은층에서 43.9%가 즐겨 입어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활동복으로의 의복 형태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피스의 경우는 전체적인 체형의 실루엣을 표현하는 의복 형태상 표준체형의 젊은층에서 43.7%가 즐겨입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켓의 경우에는 표준체형의 젊은층, 중년층이 모두 즐겨입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만체형에서도 15.6%가 즐겨 입는 의복 품목으로 나타나 마른체형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구입시 맞는 치수가 없는 경우 표준체형에서는 대부분 안산다고 응답하였고, 일부는 한치수 큰 것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만체형의 경우 안사는 경우보다 한치수 큰 것을 사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복구입시 기준으로 하는 신체부위에 대해서는 블라우스의 경우 거의 모든 체형에서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스커트의 경우 표준체형의 젊은층에서는 엉덩이둘레를 기준으로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중년층에서는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바지의 경우 표준체형의 젊은층에서는 스커트와 마찬가지로 엉덩이둘레를 기준으로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넓적다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일부 나타났다. 그외 체형에서는 엉덩이둘레를 기준으로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